

産業界의 技術開發 資金 지원

-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 -

최근 한국경제는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성장을 기하기 위한 경제 구조의 재정비와 기술 혁신의 국면에 처해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산업은 저임의 노동력과 선진국으로부터의 도입 기술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선진 국가들이 개발 국가에 대한 고도의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는 현 추세에 있어서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적, 경제적 보완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체와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였고 1977년 이후 정부와 세계은행(IBRD) 및 민간 경제계가 공동으로 그 설립을 추진, 1981년 5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발족하게 되었다.

동사는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체질개선을 도모하므로써 산업 구조를 고도화 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하에,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RD&E)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금융을 위주로 기술개발 자금을 전문지원하고 있다. 생산에 따른 시설 및 운전자금 등 하드웨어 부문의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과는 업무적인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의 주업무는 산업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 활동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위 Venture Capital이라는 새로운 금융지원 형태인 모험자본과 기존 금융기관에서 행하여왔던 일반융자를 병행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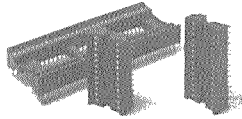
투융자시에는 전반적인 기술개발 정책을 고려

하여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산업, 수출 산업 및 수입대체산업, 국내 자원의 개발 활용 또는 수입자원 사용의 절감에 기여하는 산업,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대상 사업의 기술개발 면에서의 기여도 및 기술의 시장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신청 회사의 기술능력, 경영능력 및 재무적 경제적 면에서의 수익성과 공익성도 각별히 고려하여 투융자 결정을 하고 있다.

한편, 가능한 한 다수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일 산업 분야나 동일 기업군에 대하여 투융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회사의 과거 3년간의 지원 실적은 기계·금속 업종이 전체 지원액의 37%, 전기·전자업종이 32%, 화학·식품 및 기타 업종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전 산업계에 고루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화 및 외화 자금의 지원은 일반융자, 조건부융자 및 투자의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융자란 기존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방식으로 대출 후 약정기간 동안 소정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는 방식으로 융자기간은 계획사업의 내용과 자금계획을 감안해서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로 결정하며 신청기업의 신용상태와 계획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용대출 혹은 담보의 종류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조건부융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 방식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원한 당해 계획 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상품매출액 또는 실시전의 양도·허가 등에 의한 수입금에 대하여 일정률의 실시료(Royalty)를 징수하고, 계획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융자원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최소상환금만 회수하고 나머지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기술개발 개량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있다.

실시료는 계획사업의 위험도 및 잠재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업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고, 최소상환금의 경우는 융자원금의 30% 이내에서 계획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초기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위험성은 분담하므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투자의 경우는 신청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를 직접 인수하므로써 자본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원방식을 말한다.

설립 이후 3년 간 회사의 투융자 지원액은 총 982억 원으로써 이중 445억 원은 세계은행 차관자금으로 지원된 외화자금이다. 또한 투자 및 조건부융자를 포함한 신용대출액은 총 지원액의 54%에 해당하는 534억 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장기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이 회사의 투융자 활동이 타 금융기관과는 판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회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가용재원의 일정금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을 「중소기업 집중지원의 해」로 선정하고 회사는 300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0개 중소기업을 선정,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업에서 수행,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및 동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기 지원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개발 활동에 임하고 있다.

한국기술개발(주)는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활동 외에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이전시키기 위한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는 기술 경쟁의 추이에 발맞춰 미국의 2대 Venture Capital 전문회사의 하나인 T.A. Associates사와 업무 제휴를 갖고 동사의 Advent V Project에 참여하여 50만 불의 해외투자를 하였고 금년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Venture Capital 회사인 Accel Capital에 50만 불의 투자를 실시, 선진 Venture Capital 운용 기법을 습득하므로써 해외 첨단 기술의 국내 유치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한국적 Venture Capital이 국내의 기술금융 분야에 토착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